IPA 회장 연설(Presidential speech)

스테파노 볼로니니(Stefano Bolognini) 회장과 알렉산드라 빌링허스트(Alexandra Billinghurst) 부회장의 취임연설

(2013년 8월에 프라하에서 개최된 IPA 회의에서 발표한 연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우리와 새로운 집행부가 누구이며 IPA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먼저 이 아름다운 “중부 유럽” 도시로 우리를 반가이 맞아준 체코 동료들에게 먼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전쟁과 독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적적으로 도시를 잘 보존해준 덕분에(정신분석과 아주 흡사하게!……) 우리는 정신분석의 발원지 분위기를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곳에서 가까운 프리보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15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 또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합니다.

이번 연설은 전통적인 의전 행사의 일부이긴 하지만 부회장인 알렉산드라 빌링허슬과 회계담당자 후안 카를로스 웨이스만 그리고 IPA 위원회의 대표자들과 함께 이 협회의 직무를 떠맡게 된 것에 제가 얼마나 깊이 감동하고 명예롭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모두에게 솔직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건네는 신뢰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함께 정신분석과 IPA-- 매우 다양한 관점들(역사, 과학, 교육, 직업, 조직, 정체성 등에 대한)을 가지고 한 세기 동안 우리를 결속시킨 이 위대한 조직--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대의 협회 임원들이 지니고 있던 가치와 연속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유하는 보금자리”에 대한 우리의 분석적 열정과 사랑을 명망 높고 잘 구성된 이 대형 단체 운영에 필요한 책임감과 결합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은 제한적이지만 우리의 모든 비전과 고무적인 원칙과 미래를 위한 우리 계획의 세부 사항들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안들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반적인 개요(A General Overview)

우리는 과거와 판이하게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 신속한 정보와 통신이 특징적인 시대입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정치와 교육 시스템에서, 일상생활의 속도에서, 성적(sexual) 버릇에서, 커플과 가족과 노동집단의 동거와 별거에 대한 합의에서, 서로 다른 공동체들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에서, 새로운 사회적 특성과 다각적인 계층화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다양화되며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2015년에 보스턴에서 열리는 다음 IPA 회의에 “변화하는 세계. 오늘날 정신분석을 위한 도구의 형태와 이용”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로 결정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대가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하지만 정체성 혼란이나 현실감 상실과 이로 인한 불균형 또는 반항적인 과잉 방어의 측면에서 부인할 수 없는 위험에 우리를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선진국에서 전쟁은 더 줄어들었지만 파괴성은 이제 만성화 되어 널리 만연해 있으며, 약물과 테러 그리고 합법화되고 상업화된 도착행위와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thought)에 대한 공격도 과거에는 흔히 억압의 형태를 취했지만 지금은 좀 더 복잡한 새로운 형태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신내적 차원 모두에서 초자아(Super-Ego)와 다른 작인(agencies)들 간의 힘의 균형도 정신분석의 초창기에 탐구했던 것과 다른 새로운 불균형과 맞닥뜨린 것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병리학적 측면들이 우리의 상담실에 출현하여 분석가에게 그리 쉽지 않은 수준의 이해와 지속적인 이론적, 기술적 적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에서처럼 심리분석에서도 생리학적 의존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기본적인 목적조차 잃어버린 세상에서 방어기제가 나타나고 색다른 투자와 자기도취적 성향을 보이는 조직들 생겨난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목적을 상실하는 것은 주로 유아 시절에 필요한 주요한 생리학적 융화성 및 관계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과거에 비해 훨씬 일찍부터 활동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새로운 방어기제들이 치료의 지속과 주기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분석가들이 횟수를 줄여 치료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요구와 방법에 적합한 일정한 분석 체제로 환자를 꾸준히 이끄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상 세계가 조장한 전능함의 경험과 수월해진 장거리 통신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분석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방법론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화나 인터넷 통화를 통한 치료를 요구받고 있는데, 이런 치료의 신뢰성과 한계가 지금 열띤 이론적-임상적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도 많은 국가들에서 각료들의 결정으로 인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행동주의 학파에 압도적으로 많은 교직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IPA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교육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적인 정신요법 협회들과의 경쟁도 도처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과 IPA가 이용 가능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자산 덕분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방법론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 충분히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분석 개념에서의 강점 덕분에 존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감정전이, 방어기제 그리고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만나 생각과 감정반응과 의견교환을 함께 나누는 법을 배울 때 작용하는 과정과 변화의 존재를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에서의 강점 덕분에 존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이런 경험은 대개 우리의 삶은 변화시킨 개인의 분석적인 스토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신분석은 인간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절대 망각하거나 부정하거나 잃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무언가 입니다. 마치 새로운 콤플렉스 본능처럼 이런 경험은 자손 대대로 진지한 경청, 감정조율, 공명, 이해, 공동작업, 명확한 설명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사랑과 보살핌을 많이 받은 부모들이 자신의 갓난아기들을 사랑하고 잘 보살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세기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엄청나게 풍부한 자료와 이론적, 임상적 지식 덕분에 존속할 수 있습니다. 1856년에 이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난 한 천재의 사상이 담긴 우리의 논문들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용문들은 “임팩트 요인(impact factors, 연구의 영향력, 수준, 가치 등을 평가하는 논문인용지수)”에서 상위에 오르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과학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콤팩트 요인(comfact factor)” 으로서의 효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답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나뭇잎과 많은 나뭇가지들을 지탱하지만 확실한 태생과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줄기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직의 국제성 덕분에 존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도처의 분석가들을 위한 접촉과 토론과 지속적인 협력의 측면에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는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스테파노 볼로그니니는 알렉산드라 빌링허스트 부회장이 연설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자리를 넘겨주었다.

저는 3월에 열린 존셉 샌들러 학회에서 내게 벌어졌던 일을 여러분에 알려줌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아주 훌륭하지만 판이하게 다른 알레산드라 레마와 요하네스 레토넨의 두 논문을 기막히게 논했던 버나드 레이스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더니 다리 벌려 앉고 싶어하는 듯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녁에 마크 솔름스가 발표했던 프리젠테이션을 다시 언급하며 “저는 마크 솔름스가 ‘das ding’을 언급하는 것을 듣게 되어 행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이 그 문장을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Fue contento escuche Mark Solms……". 저는 왜 뜬금없이 스페인어 번역을 시작했는지 제 자신에게 궁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작년 10월에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몬테비데오를 방문했을 때 저는 스페인어를 공부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많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저의 열정적인 취미 활동이었습니다. 그 무렵 나는 마음속으로 많은 번역을 했지만 회의하는 동안 스페인어가 떠오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못내 궁금했던 겁니다. 저는 버나드가 방금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사뭇 다른 두 편의 논문들을 아우르면서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애썼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면서 제3자를 끌어들이려 하던 바로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번역을 결심했습니다. 버나드는 그것이 그에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공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서, 이윽고 이론과 신경과학을 연결시키고, 1923년과 2013년을 연결시켰던 제3자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스페인어를 배운 것이 저의 열정적인 취미 활동의 되었던 이유 중 하나를 내게 전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스페인어를 배우고자 열정을 갖는 것이 IPA에서 정신분석을 갖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 아주 현실성 있는 방식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스테파노 회장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도 제가 스페인어에 열정을 가진 덕분일 것입니다. 또 그 덕분에 내일 프라하에서는 스테파노와 함께 새로운 위원회의 상석에 앉게 될 것입니다.

IPA는 그 자체로 매우 복잡한 조직입니다. IPA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 63개국에서 12000명의 회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IPA의 지리적 분포는 그 자체로 논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IPA에는 70개의 부속 학회, 6개의 임시 학회와 19개의 연구집단, 세 가지 교육 모델, 정신분석을 고찰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 매우 다양한 문화 4개의 공식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로 IPA에서의 활동이 지속적인 번역 및 교량과 같은 연결 작업임을 암시합니다.

정신분석학자가 되고자 공부할 때 우리들 각자는 스스로 이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 생각을 정의하고 다듬어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학회의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했던 학회들(mother societies)로부터 나왔으며 그 지역의 관점으로 정신분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제회의 참석은 정신분석 실행과 정신분석의 사회적 현실과 정신분석의 이론적 차이가 어떻게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서 정신분석을 결속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될 겁니다.

IPA의 매우 독특한 면모가 바로 이것입니다. IPA는 우리들 중 전문가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뿐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만나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동시에 우리 조직과 회의의 규모가 엄청나기 탓에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되는 데는 불리한 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남의 장소야말로 스테파노 회장님과 제가 그리고 싶은 IPA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스테파노 회장님이 우리의 계획을 발표할 때 곧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테파노 회장님이 자신의 러닝메이트가 될 수 있냐고 제게 부탁했을 때 우리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우리 둘 다 자기 학회의 회장 자격으로 EPF 회의에 참석했을 때 실제로 만남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는 IPA를 위해 자신이 구상하는 리더십과 비전을 제게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제는 그의 러닝메이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의 세월은 그를 알아 가는 기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와 교류하면 할수록 그의 겸손한 태도와 온건함과 지혜로움에 더더욱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신분석이 공격받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위기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정신분석이 의문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비유를 스스로 인식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심리분석 방어하기”에서처럼 방어(defend)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의 경우에는 방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정적인 어떤 것을 방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신 제가 “옹호한다”는 의미로 말한다면 그것은 제 마음속에 또 다른 느낌을 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저 또한 심리분석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무언가로서 가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신분석에 대한 문제제기가 우리 자신의 이론을 더 확실히 정의하고 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한 가지 과제는 우리의 정신분석적 사고를 타인이 이해할 수 있고 대화 가능한 언어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장래에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 중 하나는 정신의학에서 심리분석이 다시금 자기 목소리를 갖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은 우리의 시각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의 지식을 이해하기 쉽고 새로운 대화가 가능한 언어로 옮김으로써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신분석을 반대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과 우리가 사용하는 비유에 대해 숙고한다면, 정신분석을 옹호하는 우리의 방식에서 우리의 관점에 변화를 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주장을 경청하게 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학회들이 분열되고 있다는 우울한 동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생각의 차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인 듯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의 대화를 명확하고 정제되게 하는 대신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의견 차이를 낳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학회들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통합의 과정에 접어들도록 IPA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저는 학회들이 정체된 상태로 남아 있는 대신 건강성을 유지하며 바람직한 발전을 향해 문호를 개방하려면 그들이 자신이 조직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의 환자들을 위해 심리분석에 들어갈 때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IPA가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회원들이 IPA에 다소 소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직에 참여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IPA는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스페파노와 저의 바람 중 하나는 IPA가 의미 있고 더 많은 회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느낌을 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IPA를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방안들 중 하나는 2015년에 보스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다음 회의를 위해 우리가 계획한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학적으로 모음을 위해 훌륭한 공간을 제공하는 아름다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풍부한 자연광과 함께 성찰하기 딱 좋은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회의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소그룹 토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온 회원들 간에 만남을 가능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한편의 시를 함께 나누면서 연설을 끝마칠까 합니다. 제가 있던 학회에서 안 젬스테트가 회장이었을 때 그는 항상 한 편의 시를 읊으면서 연례 회의를 마쳤습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 여러분과 그 전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는 원래 스웨덴어로 쓰여진 존 위프의 시입니다.

여러분은 스웨덴어와 영어와 스페인어로 세 차례 시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제 모국어이고, 다른 하나는 저의 제 2외국어이며, 마지막은 제가 익히고 있는 언어입니다. 저는 이 시를 영어로 번역한 다음 스페인어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 다국어를 구사하는 저의 비서 안드리아스 실바의 도움을 받아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동시통역사들에게 제가 시를 암송하는 동안 통역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스웨덴어의 음으로 시를 감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파노 회장님에게 다시 연설을 요청하기 전에 그들이 여러분에게 시를 통역해줄 겁니다.

나를 위해 내 안의 어둠을

보이게 하라

내 손으로 수면 위의 빛을 가릴 때

드러나는 연못 바닥처럼

수면이 깊디 깊은

하늘을 비추지 않도록

하늘을 비추는 빛의 반사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들. 내가 꿰뚫어보아야 하는

반짝이는 얇은 막 아래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들

존 위프, 블릭(*John Wipp, Blick)*, 1996년

이제 스테파노 회장님에게 다시 연설을 부탁하겠습니다.

1910년에 프로이트가 설립한 IPA는 전 세계 도처의 정신분석가들이 공유하는 보금자리입니다.

브룸힐스 위치한 IPA 본부는 충분히 자격을 갖춘 전문가 직원들과 함께 폴 크레이크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본부에서는 응집력 있는 조직 구성을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과거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IPA의 정신과 전반적인 기능을 보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의 화석화된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협회를 효율적이고 대표성 있게 유지하고자 다양한 혁신적인 개발 및 발전적인 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회 회원들과 협회와 관련 있는 공동체들 그리고 IPA와 생산적인 방식으로 협력 가능한 단체들에게도 유익한 계획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변화하는 세상에서 IPA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발과 변화가 바로 오늘의 발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을 특징짓는 전반적인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정신분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부 세계와도 관련이 있으며, 정신분석적 사고의 본질은 건드리지 않지만 과학적 지식의 발전에 의한 변화에는 개방적입니다. 이것은 지적으로(자연선택설을 주장하는 다윈주의와 후천획득형질의 유전설을 주장하는 신라마르크주의 모두의 측면에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1) 커뮤니케이션 계획

우리는 협회 대내외적으로 우리의 정신분석 공동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재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깥 세계에서 알릴 수 있는 방안(“만약 정신심리학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피실험자들은 그 목적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가 우리의 반복적인 모티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행되는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회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뿐만 아니라 공동체 소속감도 양산하는 집단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를 위해 우리는 정보와 투명성의 필요성 그리고 법률과 관련된 정확성과 해마다 변하는 비밀 규칙 준수의 필요성도 고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조직의 다양한 부문들 간의 연계 증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더 광범위하고 효율적이며 융화된 정신생활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시냅스 네트워크(synaptic network)를 통해 위원회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2) 정신분석 공동체를 위한 정신적 장(mental field)으로서의 웹사이트

 웹사이트는 단순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게시판이 아니라, 이 시대 정신분석의 과학적, 문화적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삶이 살아 표현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웹사이트 방문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웹사이트 방문이 즐겁고 흥미롭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회원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신의 문화적 경험에 대해 표면적이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유용한 요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이는 선명하고 주의 깊게 고려된 다양한 논문을 제공함에 의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웹사이트의 공공 부분(public part)를 “complex magazine”과 같이 생각하는데, 정신분석을 비학술적 방법으로 표현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이를 읽고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공 부분(public part) 중 일부분은 상호작용적일 것이고,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블로그나 토론 포럼을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고, 이러한 자원과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3) 교육 부분

 지적이고 복잡한 유기체와 같이, 정신분석은 우리 전문분야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의 분석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양한 학회간에 자신들의 수련에 대한 진지하고 솔직한 토론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IPA 멤버쉽이 단지 형식적이거나 양적인 기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IPA 내에서 다양한 정신분석 학파들의 다양한 특성들과 경험들이 서로에게더 잘 알려지고 지식이 공유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진실되고 깊이 있는 토론(debate) 만이 무엇이 진실로 필수적인 것으로 인지되는 가를 신성하게 경험되는 것에서 구분할 수 있게 하고, 과학 공동체와 종교 공동체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신분석이란 순금(“Pure Gold”)을 잘 보전하고, Franz Kafka가 그의 유명한 소설에서 잘 묘사했던, 성(“castle”)이라는 감옥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4) 아동과 청소년

 우리가 보기에, 이 영역 역시도 특별한 관심과 다양한 정신분석 사회들 간에 지속적인 논쟁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영역이 정신분석의 미래를 위해서도, 새로운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분석이 많은 사람을 위한 개인적 특별한 치료법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대중 매체의 반복적인 비난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이 현대 문화에, 특히 아동과 청소년 양육 방식에 있어서, 대부분의 선진 사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트라우마 상황 외에도, 우리는 새롭게 나타난는 통계적으로 정상수준이 되어버린 비정상들(statistically normal abnormalities)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 비정상들은 가족의 해체, 텔레비전의 체계적 오용, 만화, 플레이스테이션에 의한 재미를 위한 과다한 대체 환상의 유발과 이로 인한 창조적, 예측 가능한 상상이 희생되는 등의 현상들입니다.

 이러한 집단적 비극이 어린아이들에게 제대로 인지되지도 다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은 우리 정신분석가들에게 더 적절한 문화와 전문적 치료를 지지하고, 아이와 가족을 돕는데 참여해야 하는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우리 IPA는 과학적, 인도적 두 가지 이유로, 이 상황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이 영역에서 우리의 기여를 강화해 갈 것입니다.

 5) 정신분석과 정신의학

 우리는 한때는 왕성했던 정신분석과 정신의학 간의 대화를 재개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많은 나라에서 모순적인 상황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정신과의사들이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개인적으로는 정신분석에서 도움을 구하고, 많은 정신과 팀들이 정신분석가에 의한 기관 수퍼비전을 실제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기관과 교육이라는 부분과는 별개로, 파트너쉽은 동떨어진 문제로, 대학교육과 공공 서비스라는 두 부분에서도 정신분석의 존재는 무시되거나 공개적으로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Claudio Eizirik 교수에게 정신분석-정신의학 소위원회를 조직하고 좌장을 맡아주기를 요청하였고, 이 소위원회는 대학과 정신분석 위원회, 연구직 동료들과 파트너쉽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분석과 정신질환을 다루는 공공 영역 사이의 다리를 재건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정신분석적 치료를 받아 치료 초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 입원과 다량의 정신약물들 속에서 정신분석 치료를 마지막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입니다.

 정신과 의사와 정신분석가는 각자의 전문적 분야가 따로 있으며, 정신질환에 대항한 싸움에서 같이 일할 수 있으며: 그 영역에는 모든 이를 위한 충분한 자리가 있고, 서로가 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연구(Research): IPA멤버쉽과 연구자들 사이의 연계

 연구 영역에 대한 완전한 재정비가 새로운 좌장인 Mark Solms과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구조를 단순화하여 중심에 연구 관리부(Research Executive)를 두고 그 아래에 세 개의 산하 영역, 즉 개념적(conceptual), 임상적(clinical), 그리고 가외-임상적(extra-clinical) 부서를 두는 것입니다.

 일하는 방식은 지금보다 더 진취적으로, 지원서를 기다리고 평가하기 보다는, 연구 중요도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지원자를 초대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다른 세가지의 키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PA 위원회와 연구 관리부(Research Executive) 간의 상시적인 연락을 유지, 특정 리서치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한 요구와 관심 등을 제안.

 2) IPA 웹사이트의 특정 리서치 영역을 통해, 회원들에게 자신들이 지원하고 있는 리서치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

 3) 웹사이트를 통해, IPA 회원과 리서쳐들 사이의 상호 소통.

 본질적으로, IPA가 리서치 지원에 들이는 경제적인 노력이 큰 만큼(전체 예산의 20%), IPA 회원들이 규칙적으로 이 영역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이 정당할 뿐 아니라, 회원들에게 이러한 활동에 대하 자신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7) IPA/ 지역별 전자 저널(Regions Electronic Journal)

 PIEE와 ILAP수련 기관은 수년간의 매우 유익한 파트너쉽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지역 조직 EPF, FEPAL 그리고 NAPSAC(APsaA에 의해 지원되는)는 새로운 출판 사업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로 동등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 사업(joint venture)이 될 것입니다.

 The IPA/REGIONS E-JOURNAL”이라는 초국가적 과학 기구(Society 나 개인에 의해 소유되지 않고, 앞에 언급한 기관(institution)에 의해 소유됨)는 현재 기관(institution)의 대표자들과, 기술자들로 이루어진 특별 위원회에 의해 진행 중이고, 이들은 조만간 시행될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국제 정신분석 기관(institution)이 한 세기 이상을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범위한 커뮤니티가 그 자체를 대표하는 저널이 없다는 것이 모순적(paradoxical)이라는 점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저널은 기존의, 오래된 저널들과 매우 다를 것이고, 편집 운영에 있어서 절대적 국제성을 보장하는데 헌신할 것입니다. 이 편집 운영은 편집권을 국가마다 순환하게 하고, 모든 수준에서의 전 국가를 대표하는 정책을 포함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잡하고 새로운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의 파트너 기구들의 자랑이 되고,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균형 잡힌, 다양한 학파의 사고에 개방된, 무엇보다도 독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초국가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8) IPA의 정신분석 백과 사전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다른 위대한 과학적 시도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믿으며, 이는 IPA 정신분석 사전(psychoanalytic dictionary) 의 준비입니다.

 정신분석에 대한 많은 훌륭한 사전들이 있지만, IPA는 (우리 견해에서, 지금은 오직 IPA만이) 정신분석 세계의 다양한 이론적 동향과 학파들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보기 드물게 완벽하고 높은 수준의 사전을 만들 수 있는, 문화적 표현력, 과학적 잠재력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작업은 단지 과거와 현재의 정신분석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편집, 조직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몇몇 연구자들의 작업이 아닌, 여러 그룹의 조직적 작업이 될 것입니다.

 목표는 모든 정신분석가와 분석적으로 일하는 분들에게 치료를 위한 진정한 국제적, 최신 방법과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자료들은 우수하고 광범위하고, 프로이트(Freud)로부터 현재까지 정신분석이라는 나무의 몸체와 가지들을 모둔 아우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Conclusion)

 이 모든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다양한 지역의 동료들과 파트너쉽 안에서 함께 일한다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로, 나는 많은 시간을 내 환자와의 임상작업을 하며, 나와 그들의 내적인 삶과 접촉하면서 보냅니다: 임상작업은 분석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정신분석의 깊이와 소중함, 부분적으로는 무한함과 광대한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분석의 비밀스런 통로는 내적인 문을 열고, 회복과, 변신, 그리고 통합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분석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나 역시도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도 익숙합니다. 즉 제가 속한 학회에서, 일하는 부서에서(working parties)에서, IPA 임원으로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는 정신분석 커뮤니티에 상당한 수준의 제 에너지를 바쳐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개개인은 영감과 힘을, 어느 정도는 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의 개인적 “urszene”-우리 자신이 기원한 시나리오-에서 얻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의 프리보르(Pribor)가 있고, (만약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Kafka의 성이 우리를 가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며, 이 프리보르는 우리 자신의 베르가세(Berggasse)이고, 게젤샤프트(Gesellschaft)이며, 종국에는 국제 연합(the Internationl Association)일 것입니다.

 저의 인생 초기 세상의 중심은 볼로냐(Bologna) 근처의 언덕 위에 있는 낡은 집의 큰 부엌이었는데, 매일 저녁 저의 부모, 조부모, 삼촌, 고모, 사촌들, 그리고 형제들이 15세기부터 내려오는 오크 나무 창틀 아래 함께 모이곤 했습니다.

 지금의 제 세상이 이러한 내 초기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 초기 세상이 과거의 이별 경험과 학교, 대학, 병원, 세미나와 컨퍼런스에서 얻은 많은 발전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위대하고 과학적, 전문적인 공동체 내에서 되살아 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의 내 오크 창틀은 정신분석입니다. 그 아래서 우리의 수많은 언어와 문화들은 고갈되지 않은 자원이며, 우리는 IPA가 우리의 외적 현실에서는 물론, 내적으로, 모든 분석가들의 진정한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일해갈 것입니다.